

다윗 이야기

⑦ 사울왕의 마지막 그리고 다윗왕의 시작



나 레 이 선 사울왕은 다윗을 잡으려고 밤낮으로 애썼지만 다윗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이웃나라로 도망가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오지 못하는 그곳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 블레셋은 군대를 앞세워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애 기 엄마~~

사 람 1 사사살려주세요~

나 레 이 선 사울왕과 그 신하들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는 너무도 두려워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꿈으로도, 선자자로도 결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과 이스라엘에게 대답하지 않자, 사울왕은 심히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이 금지하신, 무당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사 울 왕 여봐라 용한 무당이 어디 있는지 알아 보거라.
내가 그에게 좀 물어봐야겠다.

나 레 이 선 사울왕은 용한 무당이 있다는 곳을 몰래 찾아가 그에게 죽은 사무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무당은 사울왕의 요청대로 사무엘을 불러왔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사 무 엘 네가 왜 나를 불러올려 귀찮게 하느냐?

사 울 제가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 왔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너무도 두렵고 답답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신에게 묻고 싶어 이렇게 하였습니다.



사 무 엘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고, 주님의 말씀을 전혀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냐!
너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에게 패하고 크게 고통을 겪을 것이다. 특히 너와 너의 아들들은 전쟁 속에서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은 바로 네가 순종하지 않은 결과니라!

나 레 이 선 사울왕은 사무엘의 말로 인해 너무도 놀라고 두려워서 온몸을 덜덜 떨며 터벅터벅 돌아갔습니다. 곧이어,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을 맹렬히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예언대로 크게 패하였습니다.



군 인 들 으아 안 돼... 사사살려줘요 으아!

나 레 이 션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과 백성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중에는 사울왕도 있었고, 또 그의 아들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이웃나라에 머물고 있었던 다윗은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크게 슬퍼하였고 사울왕과 요나단을 위해 슬픈 노래를 부르며, 그들의 영혼을 위로했습니다.

다 윷 영영 영영

나 레 이 션 전쟁이 끝난 후 왕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게 찾아와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는 다음 시즌에 계속됩니다. 쭈우우우욱~~

